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신부님 일정

- 1) 1월 20일(월) - 2월 7일(금): 한국 방문 및 휴가
- 2) 1월 26일(일) 주일 미사 집전 :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이튼타운 한인 성당 주임)
- 3) 2월 2일(일) 주일 미사 집전 : 김기현 모이세 신부(프린스턴 한인 성당 주임)

● 미사 안내

1월 30일(목)과 2월 6일(목)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울뜨레아

2월 달 울뜨레아는 2월 13일(목) 오후 7시 있습니다.

● 2019 교무금 완납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수희, 김광대, 김성문, 김성욱, 김성철, 김영두, 김영복, 김연자, 김윤선, 김재숙, 김희동, 박민수, 박영희, 송현배, 신용철, 안우풍, 오세환, 윤모니카, 이경실, 이상민, 이순덕, 임익철, 장석영, 장한민, 최만섭, 최미라, 최영숙, 황선동>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2월 16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성가책 판매

소 : \$25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김윤선 호노리나>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제노베파 구역 :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성문 루카, 김정숙 이사벨라 가정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사목회**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파**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당성가 |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 |
| 제1독서 | 이사야서 8, 23ㄷ - 9, 3 |
|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 제2독서 | 코린토 1서 1, 10-13, 17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복음 | † 마태오 4, 12-23 |
| 봉헌성가 |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
| 성체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
| 퇴장성가 |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

오늘의 묵상

예수님 시대에 갈릴래아는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 불법을 저지르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 팍팍한 곳이었기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갈릴래아를 멸시하였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면, 품위 있고 고상한 시간을 즐기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지요. 요셋말로 ‘누구는 편안히, 즐겁게 살고 싶지 않겠냐?’는 푸념이 갈릴래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선포하신 곳은 바로 갈릴래아였고, 공생활의 대부분도 갈릴래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가난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은 대개가 아프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내세울 만한 능력도 기술도 명예도 없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 시작하셨지요.

개천에서 용 나듯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언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부유한 도시나 성공한 이들의 생활 방식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갈릴래아의 큰 도시, 예를 들어 세포리스와 같은 큰 도시에서 벌어지는 삶의 구체적 언급은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회적 약자들의 만남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부자와 성공한 사람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고, 그 연민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기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처지를 살피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 주 일 | 연중 제3주일 1월 26일 | 연중 제4주일 2월 2일 | 연중 제5주일 2월 9일 |
|------|-------------------|------------------|------------------|
| 제1독서 | 박영희 마틸다 | 김정숙 이사벨라 | 하국일 암브로시오 |
| 제2독서 | 김정숙 이사벨라 | 김희동 프란치스코 | 김재숙 제노베파 |
| 봉헌자 | 최만섭, 김명숙 | 안우풍, 이경실 | 김영복, 권수희 |

우리들의 주일정성

<1월 19일(일)>

| | |
|--------------|----------------------------|
| 봉헌금 | \$852.00 |
| 교무금 | \$500.00 |
| | 김윤선(1), 안우풍(1-3), 최미라(1-3) |
| 미사예물 | \$150.00 |
| Total | \$1,502.00 |